

# 20세기 국제정치사상의 大家들

## 케네드 톰슨의 관점과 우리의 수용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좀 단순하고 얼마쯤 일차원적인 지적일지는 모르나, 우리는 국민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균허적인 지적 관심에 있어서 대단히 정치편향적이라는 느낌을 말할 수 있다. 더 쉬운 말로 국민 모두가 오늘의 정치인적인 식견을 말할 수 있으며 또 그 말들은 우리 자신을 정치적으로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오히려 모두 일리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또 이상한 것은 누구도 사태를 보거나 상황을 개척하는데 특별한 창조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늘 공동관심사에 대한 해결책은 그저 찬반의 태도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진다. 그리고 다양성은 단지 찬반의 크기 뿐이어서 어떤 때는 찬이 크고 어떤 때는 반이 클 뿐이다.

그 결과 근자에 와서는 좌파적 정치사상의 우세경향에 도착해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만을 국시로나 교과서로나 주장하고 신봉해온 것이 43년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설명할 수 있거나 또는 설명해 보려는 사람은 찾아보기조차 어렵게 되고 좌파적 성향에 대한 지지여부와 또는 그 책들의 물량적 베스트셀러화의 현실만을 특별한 기이함도 느끼지 않으면서 마주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조차 희미하다. 그저 이 현상을 이데올로기적 도서가 편중돼 있다는 평가를 그것도 주춤거림으로 해보는 선에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을 뿐이다.

또 한편 이와 똑같은 구조에서 세계정치에의 접근과 그 이해도 이루어지고 있다. 해방 이후 아마도 한국처럼 국제정치의 주제이며 과제일 수 있었던 나라도 드물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떠한 주장이나 입장도 국제정치의 역학을 벗어나서는 정리되지 않으며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조건이며, 항의하기조차 국제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이 기이한 상식의 숙제를 겨냥해서 이번에는 케네드 톰슨(Kenneth W. Thompson·美前 버지니아대 정치외교학과교수)의 명철하고도 아담한 책 한권을 들추어 보려 한다.

그의 저서인 「세계국제정치사상의 大家들」(Masters of International Thought)은 20세기의 세계정치에 대해 이를 분석하고 체계화하며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치의 규범적 기초를 이론화해 놓은 거물들 18인의 평가와

### 케네드 톰슨의 간명하고도 명석한

### 「세계국제정치사상의 大家들」은

### 20세기 세계정치를 분석하고

### 체계화한 정치사상가 18인의

### 저서를 정리, 평가한 책이다.

### 대부분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 사상가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 세계정치의 흐름을 이해하는

### 우리의 시야를 넓혀준다.

그의 작업으로서의 저서들을 정리해본 책이다.

그러나 이 18인은 저자의 탁월한 견식을 통해서 정치학분야의 전문학자들만 선정되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저술가들이라는 범위에서 언론인과 철학자와 역사가들까지 선택되었는데, 그러나 그의 선택의 올바름은 이들이 전부 「사회과학백과사전」(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논증될 수 있다.

이번에는 결론부터 먼저 적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는 이 18인의 사상과 저작들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느껴야 할 것은 이들의 절반 이상이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이 사실에 의해 우리의 시야가 아직도 얼마나 비좁으며, 그 비좁음 때문에 우리의 세계적 지위가 얼마나 담보했었을까를 지금부터라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란 점이다.

우선 그 사상가들의 명단을 저자가 개별적으로 붙인 평가적 제목들과 함께 보기로 하자. (●표: 전혀 또는 거의 소개되지 않은 사상가들)

#### 제1부 정치의 규범적 기초를 위한 탐구

● 허버트 버터필드(Herbert Butterfield 1900~1979)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1892~1971)

● 존 머레이(John Courtney Murray 1904~1967)

● 마틴 와이트(Martin Wight 1913~1972)

#### 제2부 힘과 정치

에드워드 할레트 카(Edward Hallett Carr 1892~ )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 1904~1980)

● 니콜라스 스파이크만(Nicolas J. Spykman 1893~1943)

● 아놀드 울퍼스(Arnold Wolfers 1892~1968)

● 존 헤르쯔(John H. Herz 1908~ )

칼도이취(Karl Wolfgang Deutsch 1908~)

#### 제3부 갈등과 현재의 위기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 1889~1974)

조지 케난(George P. Kennan 1904~ )

● 루이스 할(Louis J. Halle 1910~ )

레이몽 아롱(Raymond Aron 1905~1983)

#### 제4부 세계질서의 이론가

● 퀸시 라이트(Quncy Wright 1890~1970)

● 데이비드 미트라니(David Mitrany 1888~1977)

● 샤를르 드 뷔세(Charles de Visscher 1884~1973)

● 아놀드 토인비(1889~1975)

결국 세계정치의 와중에 있으면서도 세계정치의 흐름과 그 의미와 그리고 그 의미로부터 이루어지는 규범들에 대해 10대 8의 비율로 우리는 생각의 윤곽조차도 확인하거나 인지하지 않으면서 지내왔다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소개라도 됐다는 8명에 대해서도 그들의 한두권의 저서나 또는 그의 전문분야의 인상으로만 그저 알고 지내는 수준에 있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우리의 국제정치적 관심은 어쩌다 한 교수에 의해 채택되는 대학교재 한두권의 범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나 아닌지 하는 탄식까지도 해볼만 하다.

여기에 지금 이들의 저서를 전부 옮겨 본다는 일은 그러므로 무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 개별적인 저서로서는 이미 흘러간 것일 수도 있고, 또 재평가되는 것도 있으나 그렇다고 새삼스럽게 이들을, 그리고 적어도 우리에게게서는 완전히 무의미했던 이들을 다시 읽자

라고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개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대표저서들은 저서명만이라도 일별하는 것이 옳을는지 모른다.

#### ▲ 허버트 버터필드

- 개방적 자세로 정치윤리에 접근한 관찰자(저자의 평가)

「역사의 휘그적 해석」(The Whig Interpretation)

「기독교 외교, 그리고 전쟁」(Christianity, Diplomacy, and War)

#### ▲ 존 머레이

- 정신의 귀족주의를 사랑의 민주주의와 결합시킨 인도주의자(저자의 평가)

「외교정책과 자유사회」(Foreign Policy and the Free Society)

「도덕과 현대전쟁」(Morality and Modern War)

#### ▲ 마틴 와이트

- 국제관계의 탁월한 스승.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권력정치의 정의와 개념화에 공헌(저자의 평가)

「권력정치」(Power Politics)

「아프리카의 태도」(Attitudes to Africa)

#### ▲ 니콜라스 스파이크만

- 지정학적 국제정치현실의 체계화(저자의 평가)

「세계정치에서의 미국전략」(America's Strategy in World)

「조지 심멜의 사회이론」(The Social Theory of George Simmel)

「평화의 지리학」(The Geography and Peace)

#### ▲ 아놀드 울퍼스

- 국제관계의 보다 커다란 유형을 구분한 정치철학자(라인홀드 니버의 평가)

「두개의 전쟁에 있어서의 영국과 프랑스」(Britain and France Between Two Wars)

「냉전의 동맹정책」(Alliance Policy in the Cold War)

「불일치와 협조」(Discord and Collaboration)

#### ▲ 존 헤르쯔

정치에 있어서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조화 추구(저자의 평가)

「강대국론」(The Nation State and Crisis)

of World Politics)

「20세기의 정부와 정치」(Government and Politics in the Twentieth Century)

「정치이상주의와 정치현실주의」(Political Realism and Political Idealism)

▲루이스 할

-문명에 대한 규범적 전망을 제시한 인류학자(저자의 평가)

「새 대 인간」(Birds Against Man)

「문명과 외교정책」(Civilization and Foreign Policy)

「혼돈으로부터」(Out of Chaos)

「냉전사」(The Cold War as History)

▲킨시 라이트

-정치적 사회적 제도로서 파악한 전쟁의 제도사가(저자의 평가)

「효율의 폐물」(Outcasts of Efficiency)

「전쟁연구」(A Study of War, 1, 2)

「미국 대외관계의 통제」(The Control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데이비드 머트라니

-기능주의를 통한 정치의 초월 탐구자(저자의 평가)

「국제적 제재의 문제」(The Problem of International Sanctions)

「국제정부의 진보」(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Government)

「마르크스 대 농부」(Marx Against the Peasant)

「정치 기능주의 이론」(Functional Theory of Politics)

▲샤를르 드 비쉐

-국제법의 발전을 통한 세계질서와 법적 현실주의의 분석과 체계화(저자의 평가)

「유럽의 안정」(The Stabilization of Europe)

「국제공법의 이론과 현실」(Theory and Reality in Public International Law)

「벨기에의 사례 : 하나의 사법조사」(Belgium' Case : A Judicial Enquiry)

저자는 이들을 선택소개하면서 이렇게 서두를 댄다.

“명백히, 이 사상가들에 대한 사상에 대

해 내가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들을 읽기 위한 대응품으로서가 아니다. 나의 의도는 단순히 이 사상가들의 저술, 인간과 정치에 대한 그들의 기본적 가정, 국제체계의 본질에 대한 그들의 개념, 국제정치의 규범적 구조에 관한 그들의 견해, 그리고 권력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들의 견해가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저자는 겸손하지만 그의 저술들은 해박하고 명석하며 깊이가 있다. 이제 그 한 구절을 더 보아 두기로 하자.

“조지 케난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라인홀드 니버는 오늘날의 국제정치에 관해서도 저술하였다. 최근의 지성사에 대한 이 탁월한 신학자의 공헌을 과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월터 리프만은 자신이 다음과 같이 질문하면서 니버의 공헌을 평가했다.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지나서야 우리는 그와 동등한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저서와 논문의 방대한 유출에서 니버는 국제정치에 적용된 것으로 이른바 ‘기독교적 현실주의’로 일컬었던 주된 요소를 발견하고자 했다. 기독교적 활동주의자와 사회 활동주의자에 의해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 일시적으로 무시된 그의 저술들은 1970년대 후반에 재발견되었다. 정치윤리에 대한 결집력 있고 지속적인 접근방법을 추구하는 어느 누구도 그의 저서를 무시할 수는 없다.”

라인홀드 니버를 말하는 한 표현이다. 마찬가지로의 관점과 태도로 18인의 사상가들은 지나간 사람과 사상의 사람들이 아니다.

(蛇足두마디 : 이 시리즈 쓰기의 기본지향이 그러한 바이지만 이번 도서영역에 있어서는 더욱 평균적 교양독자를 대상으로 논의하고 지적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결코 전문학자들의 연구관심이나 지적 관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하나 우리에게도 소개돼 있는 8인의 譯刊도서목록은 그 중복적 간행의 분별이라는 과제 때문에 일단 유보하였다.)

작품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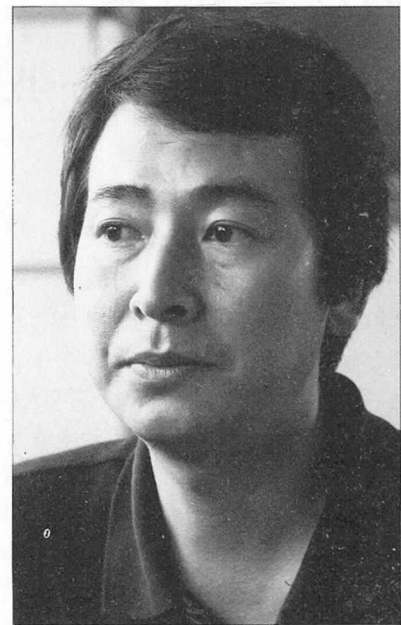
# 모든 가치에 대한 회의와 불복종

## 「勳章」

高元政

소설가

**제주도의 한 소년  
금릉위 박영효의 양자가 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손자인 현소위가 끝내  
자살하기까지에 이르는  
파란만장한 가족사를  
우리 현대사의 굴곡과 중첩시켜  
될 수 있는 한 세밀하고 침착하게  
그러나갈 생각이다.**



작가들에게는 “이걸 쓰기 위해 작가가 되었다” 싶은 작품들이 있다고 한다. 내 경우는 「勳章」(가제)이 그러하다. 10년 이상을 벌러오면서 나는 언제나 생각했다. 이 소설을 끝낸 후에야 비로소 한 사람의 작가임을 자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간 적지 않은 수의 단편들을 발표해 오면서도 나는 늘 의도를 하고 있는 기분이었고, 내심으로는 언제나 이 작품에 매달려 있었다. 애초에는 신춘문예에 응모했던 단편이었던 것이 중편으로, 한편 분량의 장편으로, 3부작 세권의 장편으로, 마침내는 원고지 약 1만2천장의 긴 소설로 구상의 폭이 넓어지고 말았는데, 완성되는 소설은 이보다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을 갖고 있다.

소설의 주요 배경은 1980년에서 1981년까지의 어느 병영이다. 신화처럼 부대를 지배하고 있는 한 죽은 영웅에 대한 젊은 ROTC장교의 반발과 저항이 이야기의 뼈대를 이룬다. 그 위에 1907년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파란만장한 한 가족사가 겹쳐지는 것이다. 그 가족사의 부침이 우리 현대사의 굴곡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은 물론이다. 거슬러올라가면 제주도의 한 소년인 금릉위 박영효의 양자가 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손자인 현소위가 끝내 자살하고 말기까지의 이야기를 나는 될 수 있는 한 침착하고 세밀하게 그러나갈 생각이다. 그 수많은 이야기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온몸으로 부딪쳐 나갈 사람들-지섭·철기·은우·정우

등의 목소리가 지금 내 귀에는 쟁쟁하다 그외에도 박태환·고인덕·박진호·박건호·최일권·최근우·장석천 등등...한풀이를 해주어야만 할 인물들의 눈빛이 내 뒤통수를 떠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쓰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된 것이다.

긴 소설의 경우는 대개 연재의 형식으로 발표한 다음에 책으로 내는 게 상례이나, 나는 全作으로, 그것도 가능하면 짧은 시일내에 끝마칠 생각이다. 이미 머릿속은 가득찰대로 가득찼다. 이 상태를 길고 신중하게 가져가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고 믿는다. 그리고 솔직히 말한다면 빨리 끝내고 훌가분해지고 싶다. 오랜 짐과도 같았던 이 소설을 그만 내려놓고 싶다. 이미 첫째권은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이 소설에 끈질기게 매달려서, 늦어도 내년 가을까지는 매듭을 짓고 싶은 게 내 욕심이다.

길고 긴 고해를 시작하는 기분으로 나는 「勳章」의 서문을 이렇게 썼다.

—내게 있어서 기성의 모든 제도와 가치관, 13세에 이미 그 의미를 잃었다. 이것은 그 회의와 절망과 분노와 불복종의 기록이다.